

- 주요 뉴스: 미국 S&P500 지수, BofA의 실적 호조와 영국 감세안 철회 등으로 큰 폭 상승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금리인상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영국 재무장관, 감세계획을 대부분 철회. 광열비 지원은 기간 단축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대출 만기 금액은 전액 연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은행의 양호한 실적, 영국 재정정책 리스크 완화 등이 영향
주가 상승[+2.7%], 달러화 약세[-1.1%],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긍정적 기업실적 전망 및 저가매수 유입 등에 기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관련주 강세 등으로 1.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1.2% 상승, 엔화는 0.3%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영국 금융 불안 개선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431.7원, -3.6원) 0.2% 하락, 한국 CDS 하락

		10/17일	10/14일	전일대비			10/17일	10/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678.0	3,583.1	2.65%	국채 금리 10y	미국	4.01%	4.02%	-1bp
	유럽	398.48	391.31	1.83%		독일	2.27%	2.35%	-8bp
	중국	3,084.9	3,072.0	0.42%		영국	3.98%	4.34%	-36bp
	일본	26,776	27,091	-1.16%	CDS 5y	한국	60bp	62bp	-2bp
	한국	2,219.7	2,212.6	0.32%		중국	115bp	115bp	0bp
환율	달러지수	112.08	113.31	-1.08%	위험 지표	EMBI+	-	478	-
	유로화	0.9841	0.9722	1.22%		VIX	31.37	32.02	-2.03%
	엔화	149.04	148.67	-0.25%		WTI유	85.46	85.61	-0.18%
	위안화	7.1965	7.1925	-0.06%	원자재	구리	341.6	342.4	-0.23%
	원화	1,435.3	1,428.5	-0.47%		금	1,650.1	1,644.5	0.3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S&P500 지수, BofA의 실적 호조와 영국 감세안 철회 등으로 큰 폭 상승

- 10/17일 S&P500 지수는 전일비 크게 올랐고(3,678.0, +2.65%) 다우 및 나스닥지수도 모두 전일비 상승(각각 30,185.8 +1.86%, 10675.8 +3.43%). 이번 상승은 BofA의 실적 호조와 영국의 감세안 철회 등이 호재로 작용
- 이날 공개된 BofA의 3/4분기 이익은 주당 0.81달러로 예상치(0.77달러) 상회.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와 채권거래 이익 증가 등이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다만 신용손실을 감소한 총당금이 확대되면서 3/4분기 이익은 전기에 비해 소폭(8%) 감소
- BofA의 브라이언 모니한 CEO는 고객의 경제활동 증가 등이 수입증가에 기여했다고 진단. 금리 상승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은행들의 3/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John Hancock Investment Management의 Emily Roland)
- 한편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 등으로 영국 금융시장 관련 불안이 완화된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 이날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3.98% -36bp). 아울러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역시 주가 상승의 요인
- 연준의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실적 관련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몇몇 호재가 투자 심리를 자극. 특히 주가가 큰 폭 하락한 상태라면 약간의 호재만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LPL Financial의 Quincy Krosby)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기침체 가능성 반영

-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9.1을 기록하여 전월(-1.5) 및 예상치(-5.0) 하회.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ISM 제조업 PMI보다 먼저 발표되기에 실물경제를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는데 8월(-31.3) 이후 마이너스가 지속

■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는 금리인상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나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기에 금리인상을 과도하게 빨리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완화적 통화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영국 재무장관, 감세계획을 대부분 철회. 광열비 지원은 기간 단축

- 헌트 장관은 논란을 일으켰던 소득세율 인하를 보류할 것이며,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줄일 방침. 이 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축소, 배당소득세 인하 등도 모두 백지화할 전망
- 한편 영란은행은 긴급 국채매입 종료 이후에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유럽 가스 가격, 6월 이후 최저 수준. 비축량 확대 등이 영향

- 10/17일 가스 선물가격은 127.98MWh로 9.9% 급락. 최근 가스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데, 이는 따뜻한 날씨, 가스 비축 확대, 가스 수입 증가 등에 기인
- 한편 EU는 가스 가격 상한제 초안을 공개. 이에 따르면, 가스 가격이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상승할 경우 EU가 시장에 개입해 가스 가격 상한을 설정.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 상황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대출 만기 금액은 전액 연장

- MLF의 1년물 금리를 2.75%로 유지하고, 이날 MLF 대출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5000억위안을 모두 연장하기로 결정.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 규모는 변함이 없었는데, 8월과 9월 20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 흡수와는 다른 모습
-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양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고용이 안정화되는 등 3/4분기 성장률이 양호하다고 평가. 다만 코로나 팬데믹 관련 봉쇄조치와 부동산 부문의 부진 등은 향후 전망에 위험 요인이라고 첨언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정책 지속할 방침. 내년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

- 구로다 총재는 내년부터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물가목표의 안정적·지속적 달성을 위해서는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8 현지시각 기준)

- ECB 슈나벨 이사 강연, 미국 9월 산업생산,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학자들, 내년 상반기 완만한 경기침체 전망 - WSJ

(Economists Now Expect a Recession, Job Losses by Next Year)

- 10/7~11일 실시한 서베이 결과, 12개월 내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 상회(63%). '23년 1/4분기(-0.2%), 2/4분기(-0.1%) 연속 역성장이 예상되며 침체기간은 8개월로 전후 평균 침체기간(10.2개월) 하회할 것으로 추정
- 연간 성장률은 '22년 0.2%, '23년 0.4%를 기록할 것이며 실업률은 9월 3.5%에서 12월 3.7%, '23.6월 4.3%, '23년말 4.7%까지 상승한 이후 '24년말까지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금리인상이 과도하다는 의견은 7월 45.6%에서 58.9%로 상승했으며 경기연착륙은 달성 불가능(University of Michigan의 Daniil Manaenkov)

■ 미국 증시, 약세장 랠리 속 투자자들의 저점 탐색 본격화 - WSJ

(Mystery stock surge is probably just another baer market rally)

- 10/13일 S&P500 지수가 9월 소비자물가 강세에도 장중 5%가 넘는 변동폭을 보이고 상승 마감한 이후 다음날에는 반락. 이는 약세장 속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저점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며 투자자들은 매수 타이밍을 가늠
- 과거 사례를 볼 때 1990년대 이후 10/13일과 같은 일중 반등 이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간 것은 두 차례('20년 3월, '97년 10월)에 불과하며 나머지('98년 8월, '00년 4월, '01년 1월, '02년 7월, '08년 9월, '10년 5월, '11년 8월)는 랠리를 최대 3개월간 이어간 이후에 재차 신저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다소 비관적
- 다만 '01년과 '08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새롭게 도달한 저점이 큰 폭 반등일에 경험한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

■ EU,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EU ministers advised to take a tougher line on China)

- 10/20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① 중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② 협력자이자 경쟁자(partner-competitor-systemic rival)로 보는 기존 시각은 지양하고 ③ 전면적 경쟁자로 인식할 필요
- 대중협력은 기후변화 등 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반도체, 희토류 등의 의존은 전략적 취약요인으로 국내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이 중요

■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념 중시 정책,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 WSJ

(Xi Jinping's Ideological Ambition Darkens China's Economic Prospects)

- 시진핑 주석은 국가안보 및 이념을 통치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 이는 과거 가파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민간부문의 발전을 억제. 또한 중앙집권적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GDP 증가의 둔화로 연결
- 아울러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자본 집중을 강조하는데, 이는 생산성 및 임금상승 둔화를 야기.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도 성장에 큰 장애물. 이에 IMF는 공공부문 개혁 시 생산성 증가율의 2배(1.4%) 향상을 기대
-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자본의 규제강화는 국내 자본의 유출을 초래.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감소. 중국 내 일부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중국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로 재편(US-China Business Council)

■ 자유무역의 대안, 새로운 무역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 - Financial Times

(Free trade has not made us free)

- 미국 정치권이 무역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지정학적 여건 변화를 시사. 무역은 전세계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고에 종언이 도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세계화는 양극화만을 유발했다는 문제의식도 부각. 이전에는 무역에서 가격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인권, 기후변화 등의 가치도 중요
- 러시아와 중국 등은 무역거래를 지정학적 분쟁에서 무기로 활용. 이를 대체할 체제는 규율에 기반하여 개방된 국가 간 동맹(friend-shoring)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 세계 경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통합적 해결 시스템이 부재 - Financial Times

(A collective will to tackle global challenges needs more tools)

■ 미국과 OPEC+의 반독점법 논란, 원유시장의 새로운 교란 요인 - 블룸버그

(Making OPEC+ Subject to US Antitrust Law Will Backfire)

■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 제3국을 통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Diplomacy should not be a dirty word in the Ukraine wa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